

에덴의 첫 공동체, 가정 (창 2:18-25)

1. 모든 것이 좋았던 하나님의 처음 세상에서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18절)

하나님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1)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으나, 2:18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혼자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유아독존하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체를 이루시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동역하십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 (2)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에제르 케네그도)’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여기서 ‘돕다(에제르)’는 부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같은 본질적 기여를 의미합니다. ‘배필’은 서로 동등하면서도 꼭 맞는 협력자이자 파트너를 뜻합니다.
- (3) ‘관계’를 통해 윤리적 책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남성과 다르면서 꼭 맞는 협력자로 만드신 이유는 가정이 윤리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설계하실 때, 결혼을 통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관계적/윤리적 책임을 배워서 사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눔

지금 관계가 단절되어 나 홀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혹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19-20절)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1)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창조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통치 행위입니다.
- (2) 아담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창조를 이야기하실 때 동물의 창조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아담이 여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협력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 (3) 아담이 선물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도 본인이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을 먼저 깊이 공감하시고 스스로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알도록, 스스로 찾고 구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선물(사람, 기회 등)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나 필요를 깊이 깨닫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3.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21-22a절)

아담의 결혼을 누가 주도하시며,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22b-23절)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 (1) 아담의 갈빗대로 특별 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깊이 잠들게(마치 마취하듯이)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하나이며, 심장에서 가까운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존재이자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 (2)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에게 직접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행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셨음을 보여주며, 이 연합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보여줍니다.
- (3) 아담은 ‘최고의 시’로 감탄하며 반응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시를 읊습니다. 아담은 타인을 발견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남자(이쉬)’라고 부르며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눔

지금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관계 속에서 배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첫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24-25절)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 (1) ‘부부의 연합’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가정이 견고히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 (2) 같은 목적과 사명을 가진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사명을 위해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다른 모든 공동체의 바탕이자 원형이 되며,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연결됩니다.
- (3) ‘온전한 신뢰와 친밀함’을 누립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연합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연합은 부부가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나눔

가정에서 부부의 연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공동체에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누어 봅시다.